

등록번호 공동체팀-1798

★공동체팀장 여성정책실장 대표이사

결  
재 김창연



# 2016 여성정책박람회 결과보고

## I 추진배경 및 목적

### □ 추진배경

- 재단은 2007년 설립 이후, 여성주간 기념사업을 비롯하여 3·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와 여성정책박람회에 이르기까지 여성 활동을 기념하고 성평등 의제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음
- 특히 서울시는 2012년도부터 해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책개발 과정에 참여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박람회를 개최해 온 바, 재단 역시 정책박람회의 연계행사인 여성정책박람회를 주최하여 서울시 주요 여성가족정책을 홍보하고 시민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옴
- 이에 「2016 함께서울 정책박람회」에서 여성정책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울시 주요 여성가족정책 방향을 시민과 공유,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음

### □ 추진방향

-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소통 활성화의 장을 마련함
- 올해 서울시의 주요 추진정책인 여성안전정책에 대해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
- 특히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추진된 “여성안전 해결책·방”에서 제시된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2.0 정책과 시민이 직접 제안한 해결책 아이디어를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 마련
- 또한 여성안전 해결책·방 시 시민아이디어 중 하나로 대상별 여성안전 맞춤형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, 각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안전정책이 요구되는 집단을 중심으로 논의 모듬을 구성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요구안 도출

### □ 추진목적

-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및 해결책 아이디어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
-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10개 및 해결책 시민 아이디어 10개 선정 ▶ 시민의견 수렴
-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상별 여성·아동 안전 정책요구안 마련
- 대상별 모듬 구성 및 모듬 토론 ▶ 각 모듬별 5~10개의 정책요구안 도출

## II

### 추진개요

- 일 시 : 2016년 10월 7일(금), 10:00~18:00
- 장 소 : 서울광장 및 시민청 지하 2층 이벤트홀
- 주 제 : 서울시 여성안전정책, 시민에게 길을 묻다
- 주요내용

구분	내용	장소
시민 거리투표 (10:00~18:00)	-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10선 인지도 및 선호도 투표 - 여성안전 해결책방 시민 아이디어 선호도 투표	서울광장
안전공감Talk (15:00~17:30)	- 대상별 안전이슈 모둠 토론 및 정책요구안 도출 - 정책요구안 작성 및 발표, 공유	시민청 이벤트홀

- 참 석 : 서울시민 및 전문가 등 총 200여 명
  - 시민 거리투표 :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참여 시민 150여 명
  - 안전공감Talk : 대상별 토론자(현장 전문가) 관심 시민 42명 및 재단 직원 등
- 일 정
  - 전체사회 : 김창연 공동체팀장

구분	시간	내용	비고
거리투표	10:00~18:00	○ 시민 거리투표 및 캠페인	-
안전공감 TALK	15:00~15:05	○ 안전공감Talk 개최 : 환영사 및 행사소개	강경희 대표이사
	15:05~15:10	○ 참가자 인사 나누기	모둠별 인사
	15:10~15:30	○ 토론 주제 선정	모둠별 논의
	15:30~16:00	○ 정책 요구안 선정을 위한 1차 논의	
	16:00~16:30	○ 정책 요구안 정리를 위한 2차 논의	
	16:30~16:50	○ 정책 요구안 정리	
	16:50~17:20	○ 테이블별 정책 요구안 발표 및 공유	모둠별 1인
	17:20~17:30	○ 총평 ○ 기념사진촬영 및 폐회	강경희 대표이사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

### Ⅲ

## 시민거리투표 세부 추진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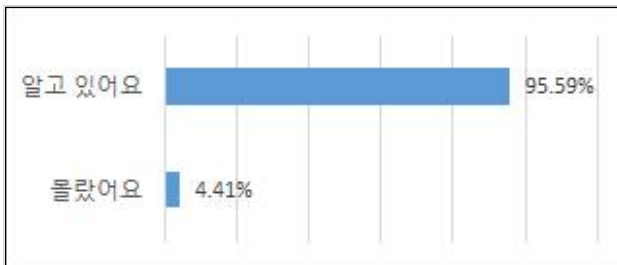
### □ 추진개요

시간	내용	비고
09:00~10:00	○ 시민거리투표판 설치	-
10:00~18:00	○ 시민거리투표 및 캠페인 참여 유도 -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10선 홍보 및 시민참여 유도 - 여성안전 해결책·방 시민아이디어 10선 홍보 및 시민참여 유도 -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위한 시민 의견 참여 유도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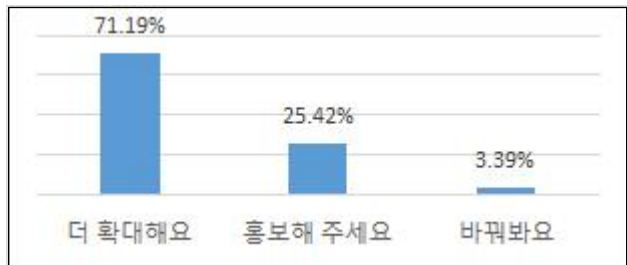
### □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10선 시민투표 결과

#### ① 혼자 걷기 무서운 밤길에 함께 합니다!

-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에게 귀가동행을 신청하시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만나 집까지 데려다 드립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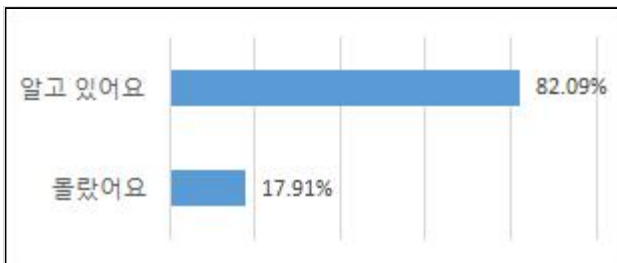
인지도 결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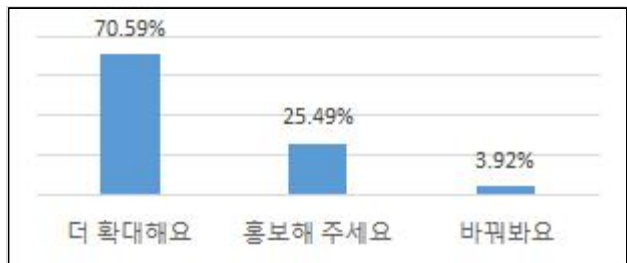
선호도 결과

#### ② 택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!

- 집이 비어있을 때, 택배 사칭 범죄가 걱정될 때, 여성안심택배를 이용하세요
- 물품 주문 시 배송지에 여성안심택배함 주소를 입력하시고,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령하세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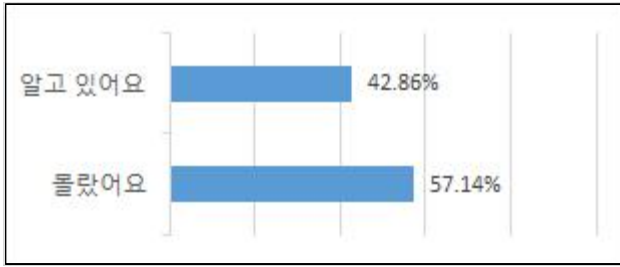
인지도 결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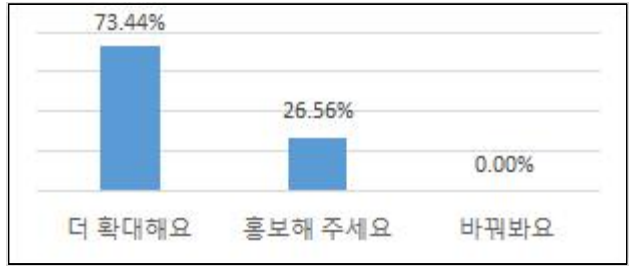
선호도 결과

#### ③ 몰래카메라, 여성이 적발합니다!

- 여성안심보안관이 전문장비로 몰카를 찾아냅니다
- 화장실, 탈의실 등 2,400여 개소를 점검하고 경찰청과 협조하여 대응합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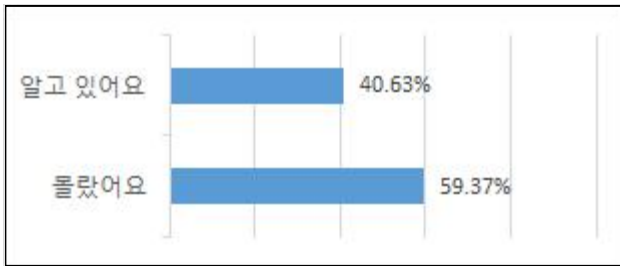
인지도 결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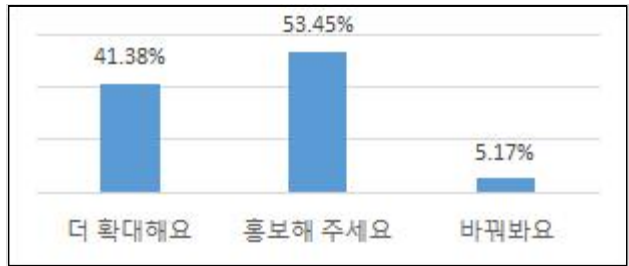
선호도 결과

④ 데이트 폭력,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!

- 데이트 폭력 전용 상담콜(02-1366)을 24시간 운영합니다
- 데이트 폭력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전문기관, 경찰·법률·의료지원 기관을 연결해 줍니다
- 서울시 내 대학생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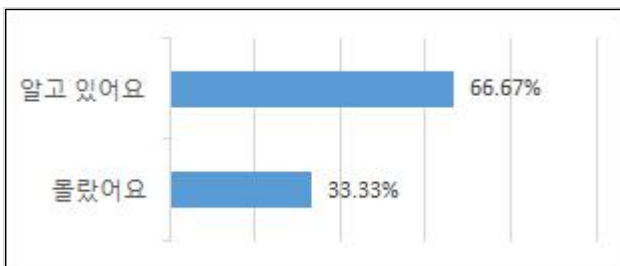
인지도 결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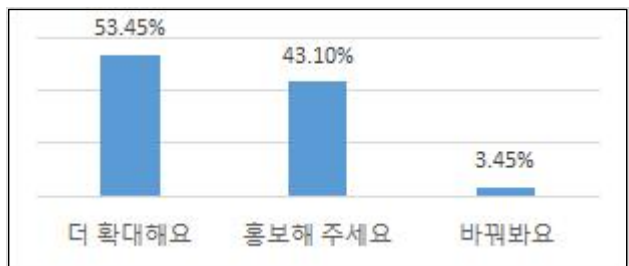
선호도 결과

⑤ 위기의 순간! 안심하고 들어오세요!

- 위기상황 시 긴급 대피하고, 경찰청 핫라인으로 즉시 신고하고,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
- 서울전역 600여 편의점이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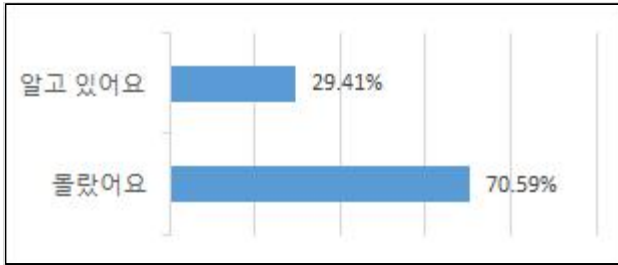
인지도 결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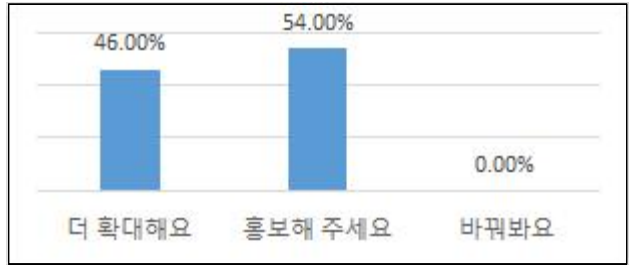
선호도 결과

⑥ 우리 마을 여성안전, 내가 직접 만듭니다!

- 지역 여성공동체, 주민자치모임들이 직접 만드는 지역 안심사업을 지원합니다
- 여성안전 활동 NGO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의 질을 강화합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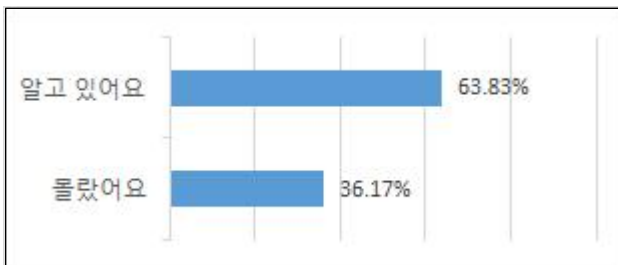
인지도 결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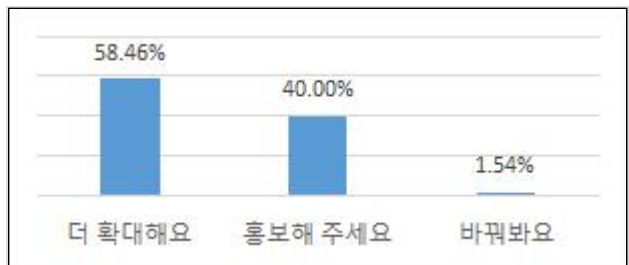
선호도 결과

⑦ 지하철 성범죄, 보안관에게 신고하세요!

- 지하철에서 불쾌한 일을 겪는다면? 지하철보안관에게 신고하세요
-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및 무질서 행위를 단속합니다
- 서울메트로 콜센터 : 1577-1234(1~4호선) / 1577-5678(5~8호선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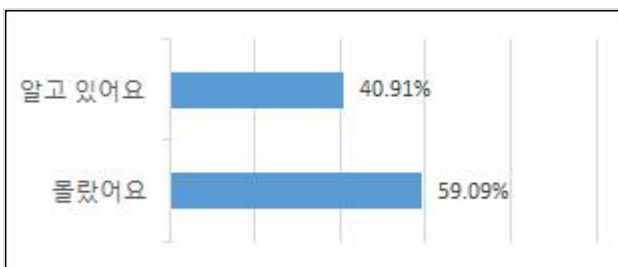
인지도 결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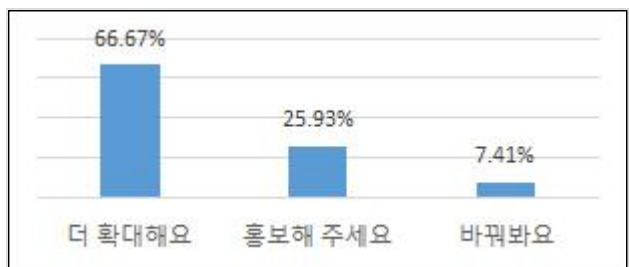
선호도 결과

⑧ 인터넷 유해환경, 시민들이 바로잡습니다!

- 인터넷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며 불법·유해사이트, 불법 음란성 전단지 등을 신고합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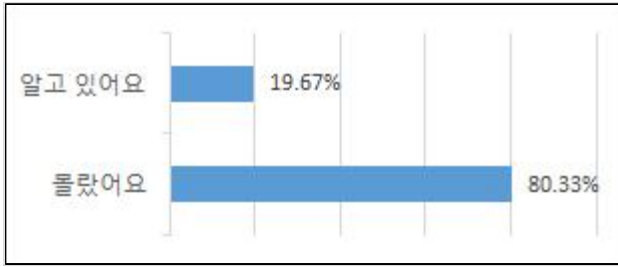
인지도 결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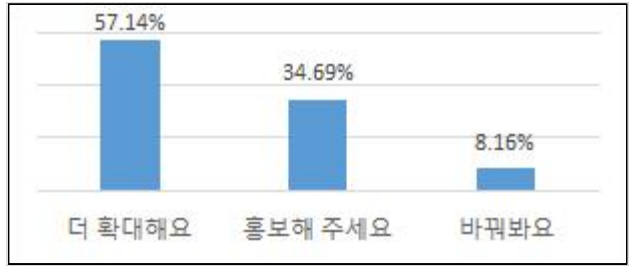
선호도 결과

⑨ 재난 피해 성별격차, 반드시 해소하겠습니다!

- 서울시 재난재해 매뉴얼을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(진행 중)
- 여성과 재난 약자를 위한 맞춤형 재난 재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('17년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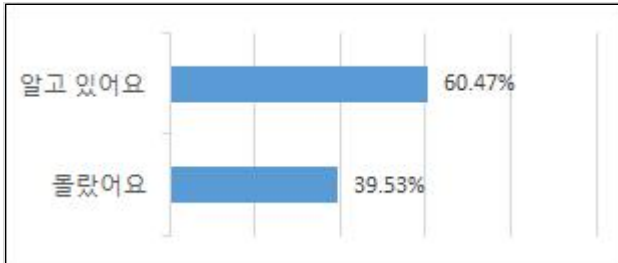
인지도 결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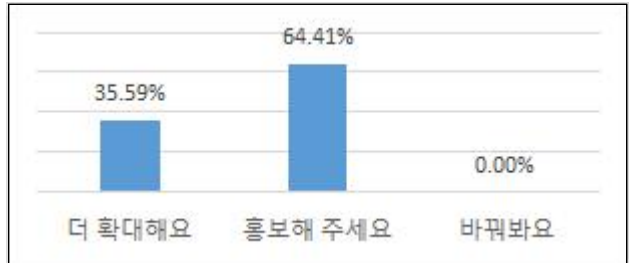
선호도 결과

⑩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“안심이”를 구축합니다

- 스마트폰 앱과 CCTV, 통합관제센터를 연결해 위기상황에 대응합니다
- 위험 상황에서 앱을 구동하면 CCTV로 위치도 확인하고 경찰을 출동시키고 경고 방송을 실시합니다



인지도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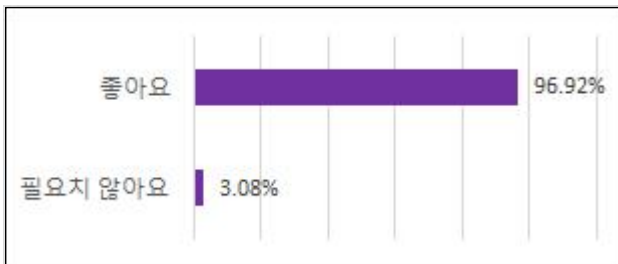


선호도 결과

□ 여성안전 해결책 · 방 시민 아이디어 10선 시민투표 결과

① 서울을 몰카 없는 도시로 만들어요!

- 몰카를 찍지 말자는 취지의 홍보물을 제작, 배포해요
-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참여 UCC, 포스터 공모전을 열어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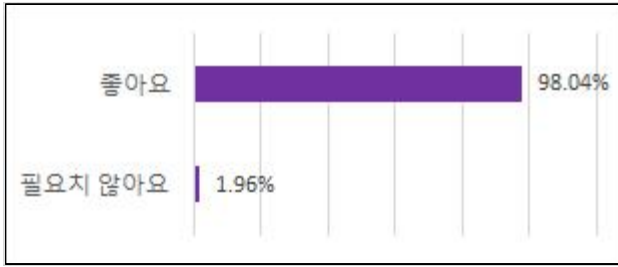
필요도 결과



선호도 결과

② 지역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해서 마을부터 성평등하게 만들어요!

- 여성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지역사회에서부터 구현해요
- 여성주의적 관점이 부족한 마을사업이나 커뮤니티에 대한 젠더의식 제고 교육을 추진해요
-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‘마을기반 성평등 정책’을 수립해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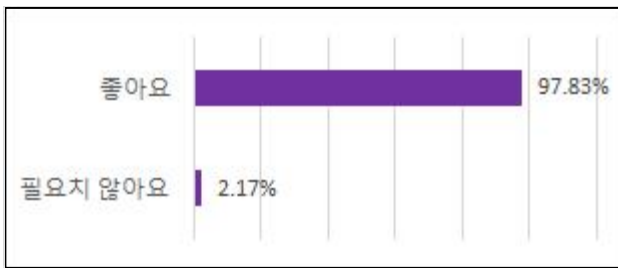
필요도 결과



선호도 결과

③ 모바일 시민감시단도 필요합니다!

- 여성폭력범죄와 성적 편견을 조장하는 앱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
- 온라인상의 여성폭력 관련 콘텐츠를 감시·고발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과 더불어 여성폭력범죄에 이용되는 모바일 앱을 모니터링합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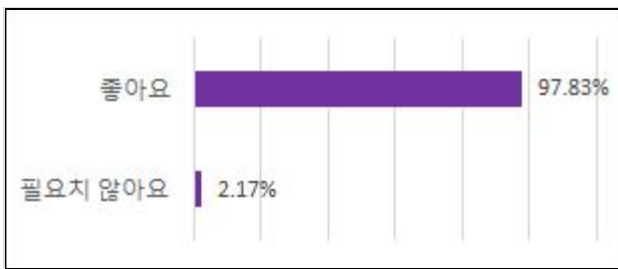
필요도 결과



선호도 결과

④ 공무원, 경찰,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젠더 교육을 모니터링해요!

-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
- 교육 콘텐츠의 적절성을 모니터링하고, 교육 후 실질적 젠더의식 변화를 모니터링합니다



필요도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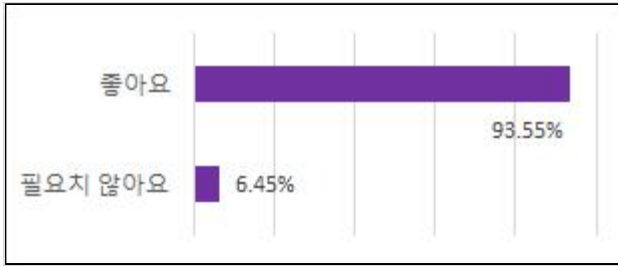


선호도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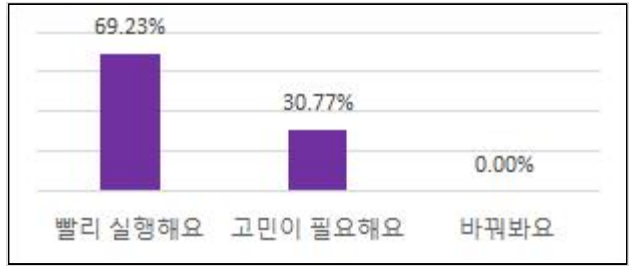
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에 대한 기억의 저장소를 조성해요!

-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와 의견을 보존하고 의미화합니다
- 온·오프라인의 모든 메시지를 빅데이터화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아카이브를 만듭니다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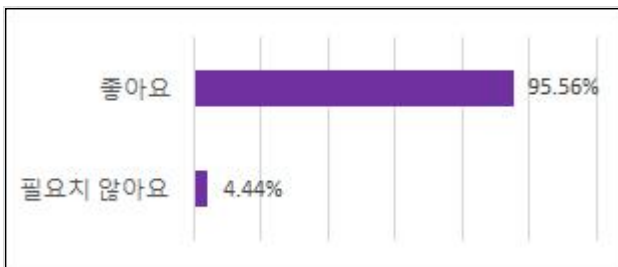
필요도 결과



선호도 결과

⑥ 서울시민이 뽑는 성평등 광고상을 만들어요!

- 사회 전반의 젠더 인식수준이 낮으면 여성 혐오범죄가 증가합니다
- 젠더 감수성이 뛰어난 기업 광고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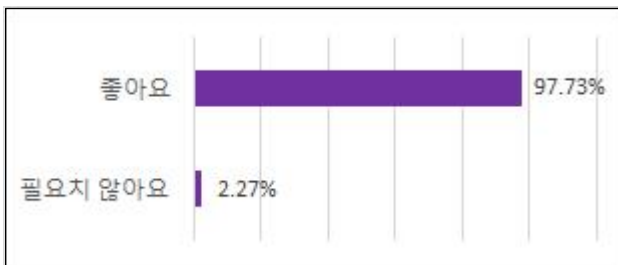
필요도 결과



선호도 결과

⑦ 통장, 반장 대상 교육을 통해 여성폭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요!

- 이웃의 힘으로 여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치공동체를 만듭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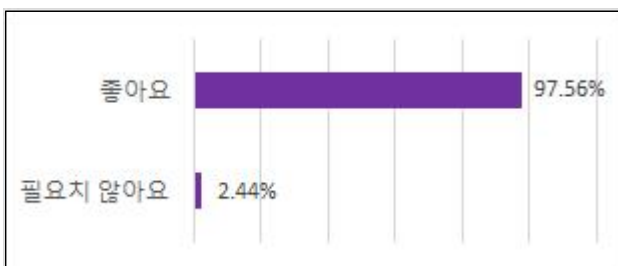
필요도 결과



선호도 결과

⑧ 서울시 성평등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실시해요

- 서울시에서 만든 광고, 픽토그램, 슬로건을 모니터링하고 성인지적으로 개선합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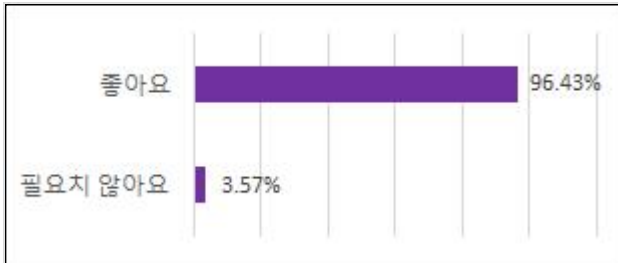
필요도 결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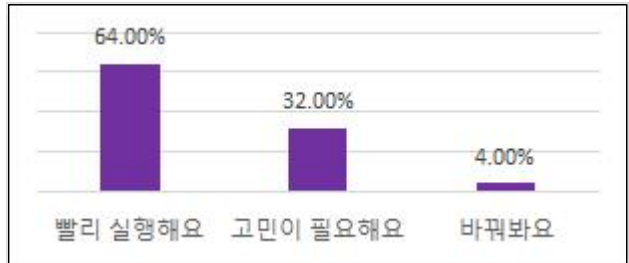
선호도 결과

⑨ 우렁이 셰르파와 함께 안전하게 등산해요!

- 여성 혼자 등산도 하기 위험한 현실입니다
- 함께 등산할 사람들을 모아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는 ‘우렁이 셰르파’ 앱을 개발합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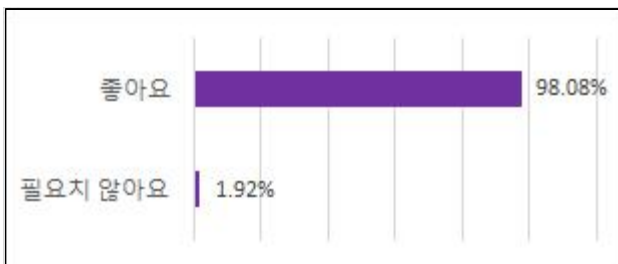
필요도 결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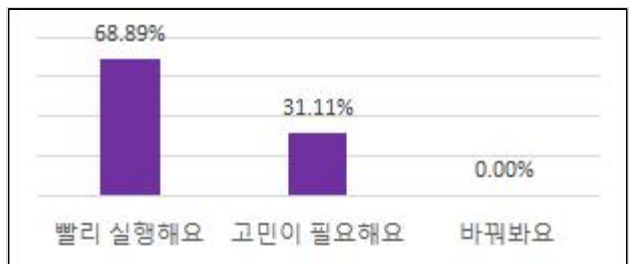
선호도 결과

⑩ ‘10대에 의한, 10대를 위한’ 성평등 10대 강사단을 운영합니다

- 어른들이 만든 편견과 통념, 미래세대가 바꿀 수 있습니다
- 청소년·청소년이 10대 현실에 맞게 직접 교안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



필요도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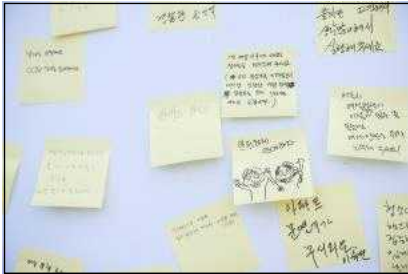


선호도 결과

□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위한 시민 의견

- 안심택배함을 지하철 무인보관함 또는 편의점 택배 활용으로 대체 또는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
- 지하철 보안관을 증원해 주세요 (경찰관 송인억)
- 청소년들이 핸드폰에만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게 다른 놀거리가 필요해요
-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. 여성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
- 아파트 문 열기가 무서워요 (이숙연)
- 빅데이터를 이용해 범죄 발생지역 예측해 (정책) 최적화 배치
- 여성안심택배함 명칭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?
- 여성 정책 추가
- 여성안심지킴이집 표지판을 좀 더 크게 만들어 주세요 (간판 잘 보이게)
- 음란물 유포보다 개인 몰카, 화장실 몰카 보는 사람도 처벌해 주세요
- 안전하게 연애하자
- 현재도 안전
- 빨리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고민해서, 생각 많이 해서 실행해 주세요
- 1인 여성가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(4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만 안전한 여성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)
-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안전한 서울여성이 우선입니다

- 지하철-지상인도에 도로 순찰순경을, 도보로 걸어다니는 순경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, 여성·노인·어린이 안전 및 강패·소매치기 등을 현장에서 단속,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
- 남자도 위험해요. CCTV 설치를 늘려주세요



#### IV 안전공감Talk 세부 추진내용

##### □ 참가자 등록, 모듬 구성 및 인사말씀

○ 모듬별 참가자 명단 : 총 42명

모듬	장년여성 (총 8명)	청년여성① (총 7명)	청년여성② (총 8명)	다문화여성 (총 13명)	부모 (총 6명)
토론자	이 ○ ○	김 ○ ○	하 ○ ○	안 ○ ○	최 ○ ○
참가자	김 ○ ○ 김 ○ ○ 이 ○ ○ 강 ○ ○ 허 ○ ○ 김 ○ ○ 이 ○ ○	천 ○ ○ 김 ○ ○ 우 ○ ○ 홍 ○ ○ 곽 ○ ○ 이 ○ ○	아 ○ 까 ○ 와 ○ ○ 권 ○ ○ 유 ○ ○ 성 ○ ○ 최 ○ ○	민 ○ 아 ○ ○ 마 ○ ○ ○ ○ 무 ○ ○ ○ 오 ○ ○ ○ 김 ○ ○ ○ 김 ○ ○ ○ 홍 ○ ○ ○ 김 ○ ○ ○ 원 ○ ○ ○ 윤 ○ ○ ○ 강 ○ ○ ○ ○	이 ○ ○ ○ 여 ○ ○ ○ 김 ○ ○ ○ 윤 ○ ○ ○ 신 ○ ○ ○

○ 인사말씀(환영사) : 강경희 대표이사



## □ 토론주제 선정 및 정책요구안 논의

### ○ 토론주제 선정

- 각 모듈별 여성·아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토론주제를 선정



다문화여성 모듈



청년여성① 모듈



청년여성② 모듈

### ○ 정책요구안 논의

- 모듈토론용 Kit 및 포스트 잇 등을 활용하여 정책요구안 도출을 위한 논의 진행
- 토론주제와 관련된 키워드 찾기-묶기-보완하기 등의 작업을 통한 모듈별 의견 종합



장년여성 모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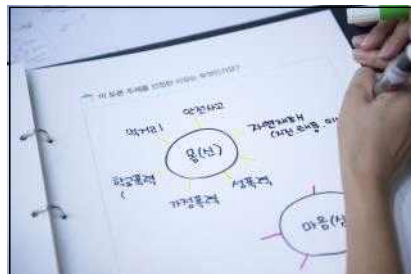
부모 모듈



모듈토론 Kit

## □ 정책요구안 정리

- 모듈별로 주어진 「안전공감책」에 도출한 정책요구안을 정리, 작성





□ 정책요구안 발표



장년여성 모듬 발표



부모 모듬 발표



청년여성① 모듬 발표



다문화여성 모듬 발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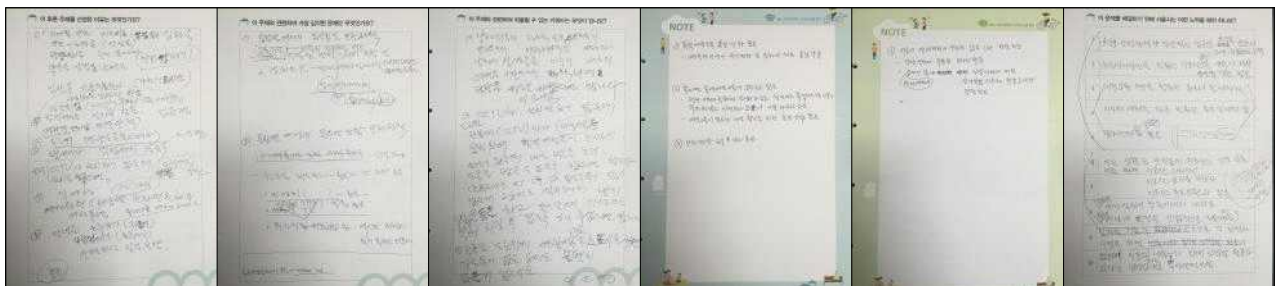
청년여성② 모듬 발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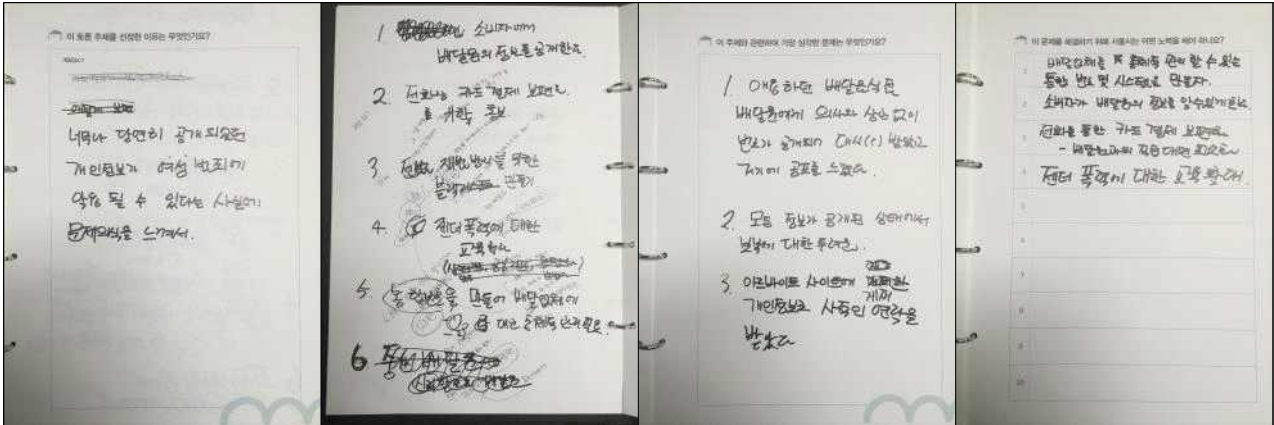
정책요구안 공유

□ 모듬별 정책요구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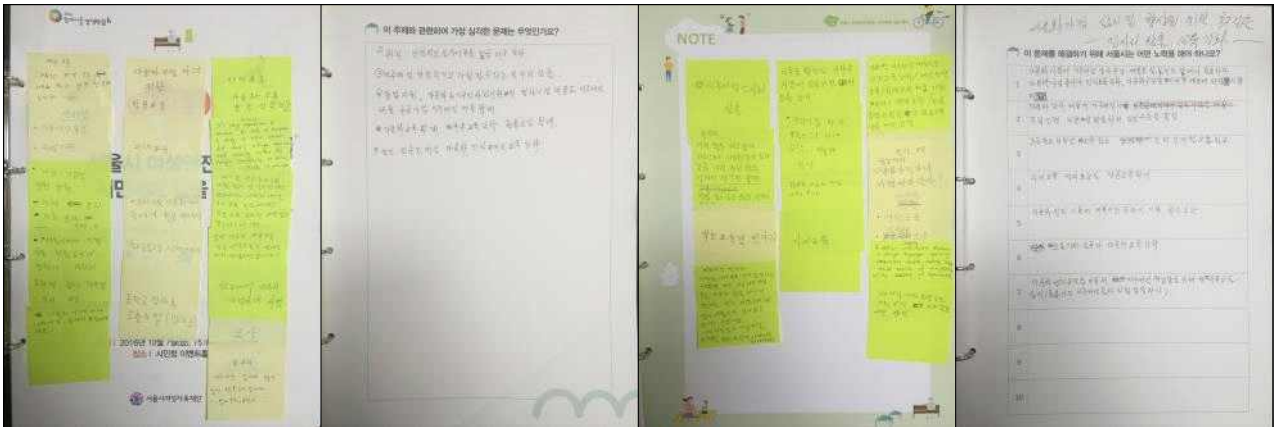
장년여성 모듬	“대중교통에서의 안전을 위한 안내물” 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중교통수단 중 지하철 안내 강화를 통한 장년·노년 여성의 생활 속 안전 확보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모티콘 및 손글씨를 활용하여 식별과 이해가 쉬운 형태의 안내표지판 부착</li> <li>- 안내표지판 디자이너 및 설치 요원 일자리 확보 효과도 창출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○ 남성 위주의 정책 토론 시스템이 많은데 여성정책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정책 방향 마련 필요</li> <li>○ 도로변 CCTV와 함께 비상벨을 마련하여 위험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</li> <li>○ 골목길의 경우 도로 위해 형광색 도료를 활용할 경우 가로등이 없는 경우에도 불편이 없을 것임</li> <li>○ 가정폭력 발생 시 위기전화 및 쉼터에 대한 홍보 강화</li> <li>○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지자체별로 실시되면서 이원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할 필요</li> <li>○ 장년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장년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확충 필요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년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 분야 중 산재보험 사각지대 문제 해결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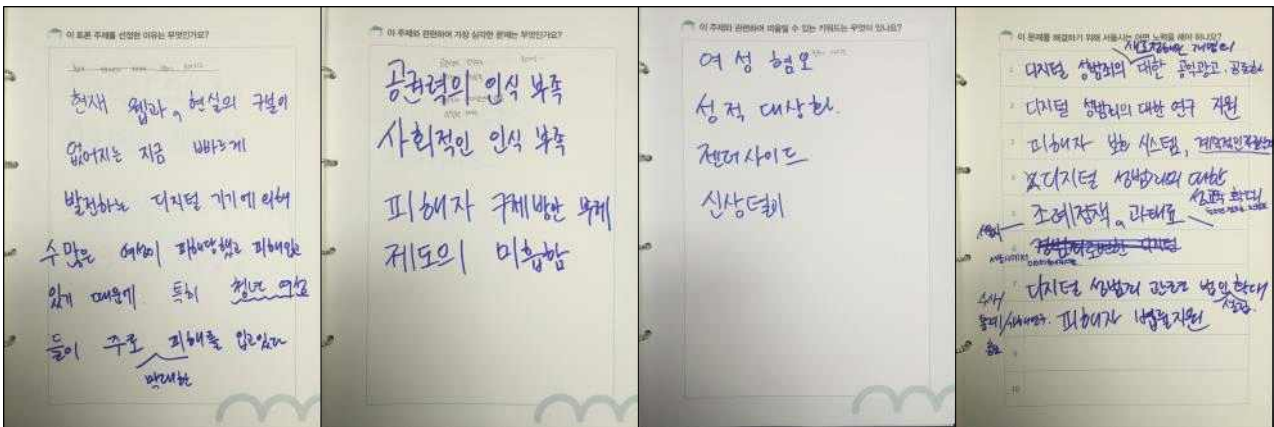




다문화여성 모둠	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 걸음 - 일자리 창출과 교육 강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취직 :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, 임금이 너무 낮음</li> <li>- 다문화 교육 확대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○ 이주여성 다문화강사 일자리의 지속성 담보 및 임금 개선 필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문화강사의 급여는 월 70만 원 선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며, 올해 다문화강사로 일한 사람이 다음년도에 연속 채용될 수 없어 교육의 질적 향상이 담보되지 않으며, 안정적 일자리가 되지 못함</li> <li>- 경력 있는 다문화강사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</li> <li>- 다문화강의 확대 및 내용 개선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○ 한국 체류 기간 무관한 다문화센터 이용 보장 필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문화센터는 한국 입국 5년 이하의 이주민들만 이용 가능</li> <li>- 영어를 사용하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 체류기간이 길어도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다는 문제</li> </ul> </li> <li>○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이주여성 채용 확대 필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주여성의 어려움은 이주여성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음</li> <li>- 다문화센터의 팀장 이상급은 다문화여성으로 채용 필요하며, 구청, 보건소 등도 이주여성 채용 확대 필요 (예 : 부산의 한 다문화센터는 팀장이 이주여성 당사자임)</li> <li>- 6개월 단기직, 최저임금의 일자리가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○ 방과후 교실 및 돌봄교실 등 확대 필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힘든 과정을 많이 겪음</li> <li>- 엄마가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방과후 교실 등의 도움을 많이 받으므로 확대 요망</li> </ul> </li> <li>○ 이주여성들의 다문화센터 공간 이용 확대 필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재 다문화센터는 18:00까지 운영</li> <li>- 이주여성들을 한국사회에 동화시키는 목적으로만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들이 필요할 때 다문화센터의 빈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</li> <li>- 직장을 다니는 다문화여성들이 퇴근 후 다문화센터의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 줄 필요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	



청년여성② 모듈	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?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라넷은 디지털 성범죄의 끝이 아니라 시작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디지털 성범죄는 1990년대 퍼스널컴퓨터 보급 이전 캠코더 보급 때부터 시작되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만연해져 현재는 문화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태임</li> <li>- 만연해짐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음</li> <li>- 여성의 셀카 사진도 음란물 사이트에 노출될 정도임</li> </ul> </li> <li>○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나,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님</li> <li>○ 사회전반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화적 접근 필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익광고 등을 통한 공론화 필요</li> <li>-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지하철역 등지에 공익광고 게재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○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성교육 확대 필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게시물,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력하는 영상 등은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, 보통 초등학교 2학년, 심하게는 유치원생 때부터 이러한 게시물을 접하게 됨</li> <li>- 아이들 및 시민들에게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왜 범죄인지 상세히 알려주는 교육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○ 조례제정과 과태료 부과 필요 : 물카를 찍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규제의 효과 강화 필요</li> <li>○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인 설립 및 연구 지원 필요 : 통계 및 연구가 전무한 현실</li> <li>○ 피해자 보호시스템과 법률지원 필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해자 대응 지원 및 디지털 성범죄물의 추가 유포를 근절하기 위한 보호시스템 마련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	





## □ 총평, 기념촬영 및 폐회

- 강경희 대표이사 총평
  - 여러분의 관심과 걱정이 읽혀지는 자리였음
  - 여성안전 해결책·방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언급됨
  - 재단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획하고 있음
  -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쉽 없이 토론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
-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총평
  - 외국 여행자에게 서울은 안전한 도시이나 시민들은 살면서 불안함을 느낌
  - 모든 사람이 안전할 권리가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
  - 안전한 도시가 성평등한 도시이고, 성평등한 도시가 안전한 도시라는 생각으로 정책 추진
  - 그러나 적은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다보면 누가 가장 갈급한지를 따지게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분들, 거동의 불편함이 있는 분들,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정책을 추진하게 됨
  - 그렇다고 하여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안전정책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음
  - 모든 사람의 안전에 대해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임
  - 오늘 모여서 토론해 주신 것이 그런 노력이며, 이에 감사드립니다
  - 오늘 제안은 내년도 서울시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



강경희 대표이사 총평



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총평



기념촬영